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10월 1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지부 10기 출범!

지부 10기 공식 임기 시작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를 이끌 10기 임원의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지부 임원선거에서 88.7%를 득표해 당선된 김정태(지부장)-변승규(수석부지부장)-성세경(사무국장) 동지가 앞으로 2년 3개월간 지부를 이끈다. 10기의 임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9기 성과 이어가고, 한계점 극복할 것

10기 임원과 집행부는 임기의 첫 시작을 보쉬 앞 천막농성 출근 투쟁과 한광호 열사 묘역 참배로 시작했다. 중앙교섭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한 보쉬 자본 앞에서 석달 넘도록 천막농성을 벌여온 9기의 투쟁을 이어갔다. 또한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다 목숨을 잃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묘역을 찾아, 반드시 노조파괴를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10기는 9기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한계점

으로 지적된 부분은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조 파괴 분쇄 투쟁의 시즌 2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산별노조 정신을 복원시켜 금속노조를 진정한 산별노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부의 역할을 실천할 계획이다.

함께 하는 투쟁, 승리하는 투쟁, 동지애를 느끼는 투쟁

9기에 이어 10기 지부장을 연임하게 된 김정태 지부장은 “다시 지부장을 맡게 해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 조합원과 함께 어울리는 지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살아숨쉬고 발로 뛰는 지부가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 “함께 하는 투쟁, 승리하는 투쟁, 동지애를 느끼는 투쟁을 만들겠다” 는 결의를 보였다.

이제 지부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시작했다. 지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산별노조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

금속노조 10기도 새롭게 출범

금속노조도 새로운 10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9월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호규(위원장)-신승민(수석부위원장)-황우찬(사무처장) 동지는 10일(화) 서울 광화문에서 콜텍, 삼성전자서비스, 자동차판매연대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간담회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후보 당시 3대 전략 (산별교섭 쟁취, 비정규직미조직 조직화, 산별조직 강화), 5대 역점사업 (구조조정 대응과 미래 전략, 조직운영 혁신, 교육사업 혁신, 규약규정 및 제도 개선, 정치세력화 방침 재정립)을 공약했다.

10기 부위원장에는 일반 부위원장 5명 (이승열, 양기창, 송명주, 정주교, 엄강민)과 여성 부위원장 1명 (김현미)이 선출됐다. 비정규 부위원장은 출마자가 없어 선출되지 못했다.

* 이번주 일정 *

■ 지부 운영위

10/16(월) 15:00 지부 회의실

■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

10/19(목) 06:30 충북 00사업장

07:00 음성 Y&T파워텍

07:00 대전 보쉬앞 사거리

■ 충북 파업 승리 결의대회

10/19(목) 16:00 청주노동지청 앞